

미국의 돼지콜레라

박멸사례에서 얻은 교훈

1. 박멸과정



채 찬 희 교수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미국은 1950년에 돼지 콜레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여 1961년 중앙정부차원에서 돼지 콜레라 박멸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다음 해에 미국 가축위생협회(USAHA)와 미국 농무성(USDA)에서 4단계 돼지 콜레라 박멸 프로그램을 제정하였다. 첫단계에서는 돼지 콜레라

발생 역학 조사를 실시하고, 2단계에서는 생독 백신 접종을 실시한다.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사독백신을 접종하였다. 셋째단계에서는 돼지 콜레라가 발생한 농장에서 감염돈군 전체를 도태하고 보상하였으며, 4단계에서는 생독과

사독 백신의 사용을 금지하고 돼지 콜레라 발생 검색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1978년에 미국 전역에서 돼지 콜레라 박멸을 선포하게 되었다.

그후에도 미국 국립수의과학연구소(UADC)에서 매년 일정두수의 돼지혈청으로부터 돼지 콜레라 감염유무를 현재까지도 실시하고 있으며, 미국정부가 북미무역관세협정에 가입한 후에는 멕시코와의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돼지 콜레라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방제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박멸된 지 20년이 경과된 지금까지도 미국 농무성 산하의 해외 전염병 연구소(Foreign Animal Disease Center)에서는 돼지 콜레라를 연구하고 있다.

2. 교훈

미국에서 돼지 콜레라를 박멸하기 위해서 20년 이상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이루어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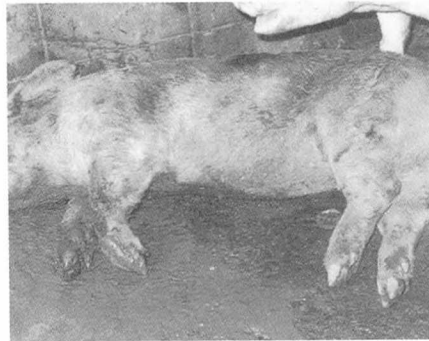


으며, 박멸 후에도 20년 이상 돼지 콜레라의 재발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단 박멸을 위한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일관되게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느 한 기관에 의해 완벽하지도 않은 프로그램을 설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소요되어도 박멸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수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모든 일단 결정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양돈관련단체, 학교, 사양가의 이해를 조화시켜 모두 관련기관과 사람들이 협력하고 토의하여 일관성있게 이끌어 가는 것이다. 특히 사양가 편의를 우선 고려해서 박멸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렇다고 사양가 편의를 위해서 박멸 계획이 차질을 일으키면 안되지만 사양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박멸 계획을 수립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일단 수립된 박멸계획은 일관성있게 지속적으로 수립해야 된다. 계획이 도중에 수정되거나 지역 또는 농장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져서는 더더욱이 안될 것이다. 한 번 수립한 프로그램을 수행 도중에서 변경하는 것은 돼지 콜레라 박멸에 대한 의지를 꺾을 뿐만 아니라, 변경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아주 말할 수 없다.

미국은 이미 40여년전에 박



▲돼지콜레라의 전형적 발증군, 허리에 의한 둔부의 오염, 후구창랑, 후구마비 등의 증상

◀돼지콜레라에 감염된 돼지의 진행된 증례에서 나타나는 하리와 체표의 제반

미국에서 돼지 콜레라를 박멸하기 위해서 20년 이상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이루어졌으며, 박멸 후에도 20년 이상 돼지 콜레라의 재발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단 박멸을 위한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일관되게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느 한 기관에 의해 완벽하지도 않은 프로그램을 설정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소요되어도 박멸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수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멸계획을 수립하여 성공하였다. 우리는 미국의 박멸성공 사례를 철저히 분석하고 최신의 연구결과를 활용하면 미국이 소요되었던 기간보다 빨리 돼지 콜레라를 박멸할 수 있다고 본다. 질병의 특성에 따라 간혹

박멸을 할 수 없는 질병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신념을 가지고 돼지 콜레라를 박멸한다면 짧은 시간에 우리나라 양돈장에서부터 돼지 콜레라를 완전히 박멸할 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고 본다. **양돈**